



권해옥 회장

존경하옵는 족친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코로나 19 감염병이 다소 완화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인해 생필품을 비롯하여 오르지 않는 물가가 없을 정도로 경제상황은 좋지 않은 실정이고, 올 한 해 또한 고전이 예상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안동권문의 각 가정마다 슬기롭게 이겨나가시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6년간 100만 족친들과 함께 했던 시간은 송조정신을 실천하고 안동권문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해 많은 일들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안동권문이 더 화합하고 더 돈독해졌고 더한층 발전했다고 사료됩니다. 저는 회장에 취임 이후 먼저, 100만 안동권문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자긍심과 자존감 및 정체성 확립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권율령 고문이 대중회에 1억원을 기탁하며 시작된 능동성역화 사업은 2019년 추향제 때 실현되었던 시조 묘소를 찾는 평창공과 선산 수호에

공이 큰 학림공의 사적비를 건립했습니다. 또한 권오록 고문이 1억원을 대중회에 기탁하여 시조 묘소 진입로 입구에 표지석을 세웠습니다. 안동시와 경상북도의 예산 1억 6천여만 원을 확보하여 시조 묘소 진입로 공사 등 성역화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두 번째, 권율 도원수 행주대첩제를 국가행사로 격상시키기 위해 1만 명의 서명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장실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한 가문의 문제가 아니라 풍전등화와 같은 누란의 위기 속에서 나라를 구한 국가와 민족의 영웅에 대한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국가행사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안동권문의 역사적인 과업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 도 권율 도원수 행주대첩제를 국가행사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건의드렸고, 2023년 3월 14일에 거행되는 행주대첩제에도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여 축사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율 도원수 국가표준영정 제작을 추진하여 권오창 화백이 제작을 맡아 수 차례에 걸친 문화체육관광부 심의 결과 12월 9일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권율 도원수 영정은 1998년 도난당하여 지난 20여 년 동안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도난문화재로 분류되어 있을 뿐 관리 주체인 고양시에서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아 대중회에서 국가표준영정으로 다시 제작할 것을 요청하여 추진한 결과 드디어 국가표준영정으로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대중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집행부를 헌신하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이전에는 타성씨에게 위탁하여 보급하던 종보를 대중회에서 인수하여 종보 직영운영과 대금수납체제를 확립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고,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으로 직원 상여금을 없애 경영을 합리화하여 8천만원을 적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써 적자운영이 흑자로 돌아서는 상당한 경영성과를 달성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는 고문님들의 찬조와 부회장님들 비롯하여 이사와 종무위원님 등 임원님들의 회비납부, 또 광고와 종보를 구독하는 많은 족친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신 공이 컸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협조해 주신 모든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번째, 능동장학회가 아직까지 대중회로 이관되지 않고 있으나 자라나는 안동권문의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권율령 고문이 해마다 1000만원씩을 기증하여 각각 10명씩 선발하여 총 20명에게 개인별로 100만원씩을 지급했고, 2020년에는 권오록 고문이 기증한 찬조금 중 11명에게 100만원씩을, 2022년에는 15명을 선발하여 각각 100만원씩을 지급했습니다. 그동안 장학금 지급 현황은 총 46명에게 4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도 후손들을 위한 장학금이 더 많이 조성되어 자라나는

되었습니다.

후손들이 안동권문은 물론이고 국가의 동량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세계적인 인재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5월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을 추대하는 문제입니다. 개정된 정관 제13조(총회) ④항은 총회의 소집은 총회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 회장추대를 다루는 총회는 개최일로부터 3개월 전 발간되는 종보에 회의의 안과 일시 및 장소, 회장 임후보자의 등록사항을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항은 2월 종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족친 여러분께서는 안동권문을 이끌어갈 훌륭한 분을 추천해 주시고 100만 족친 여러분의 관심과 화합 속에 차기 회장이 추대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안동권씨 전국청장년체육대회를 2019년 부산대회를 끝으로 개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12월 13일(화요일) 안동에서 권갑수 회장 등 전국 17개 지역 회장단 사무국장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전국청장년체육대회는 4월 23일 울산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대중회 회장으로서 안동권문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성심을 다해 최선을 다했으나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더라도 너그럽이 해량해 주시고, 앞으로도 안동권문의 도약을 위해 족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묘년 새해는 온 가정이 더욱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동권씨 대중회 권해옥 회장 외 임직원 일동

대학수학능력시험 전국수석 권하은 양 “의사가 되어 남 돕는 것이 꿈”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울산에 소재하는 현대정운고등학교 3학년 권하은(18, 주밀공파) 양이 만점자의 영예를 안았다.

만점자는 권하은 양을 포함하여 모두 3명이나 표준점수로 환산하여 권하은 양이 전국수석을 차지했다.

코로나19 탓에 주말에도 외출이 금지되는 바람에 학원에 다니지도 못하고 3년 내내 학교 기숙사에서 고교 생활을 보냈다고 한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공부한 것은 없고, “문제집을 많이 풀 정도였다”며 “어려운 국어는 틀린 문제를 반복해서 풀었고 과학탐구는 새로운 유형, 다양한 문제를 찾아서 풀었다”고 한다.

시험 당일에는 당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3번이나 계산해도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였는데도 침착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으며 다시 확인해 결국 답을 골라냈다고 한다.

권하은 양의 꿈은 의사가 되어 남 돕는 것이다. 고향은 부산이다. 권행완 편집국장

2023년 1월 임원 회비 및 찬조금 납부 내역

| | |
|----------------------|-----------|
| <찬조금> | |
| 권율령 고문 | 3,000,000 |
| <임원 회비> | |
| 부 회장 | |
| 권기홍(문경) | 1,000,000 |
| 권오강(서울양천) | 1,000,000 |
| 이사 | |
| 권택문(예천) | 300,000 |
| 권이원(대전) | 300,000 |
| 종무위원 | |
| 권동원(대전) | 400,000 |
| 권박원(대전) | 400,000 |

합계 : 6,400,000원
※ 순서는 납부 순입니다.

안동권씨대중회

존경하는 100만 족친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동권씨 대중회 권해옥 회장 외 임직원 일동